

HEADLINE NEWS

미국 남가주 2% 도시성장 전략 추진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 남가주 지역계획기구인 SCAG(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은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도시성장계획의 일환으로 '2%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개발은 모두 기개발지인 2%의 토지에 한정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 전략의 취지는 도시 외곽에서의 새로운 개발을 억제하면서 지역의 도심과 부도심, 대중교통수단 역세권 지역을 고밀도로 개발한다는 데 있다.

남가주는 로스앤젤레스市를 중심으로 6개 카운티에 걸치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2030년까지 추가로 6백만 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www.laweekly.com/ink/05/44/clear-ohland.php)
(www.socalcompass.org/2percent/maps/index.html)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도심에 새로운 위락지구 개발 (로스앤젤레스)
- ② 공업지역에 주거지 개발 (로스앤젤레스)
- ③ 미군시설 반환용지를 위한 위원회 발족 (요코하마)
- ④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 마찌즈쿠리 추진조례' 시행 (요코하마)

도시환경

- ⑤ '아파트 환경성능표시제도' 도입 (도쿄)
- ⑥ 市와 민간기업이 연계한 '지구온난화 수업' 프로그램 개시 (도쿄)
- ⑦ 새로운 대기오염 문제인 초미세먼지 (캘리포니아)

도시교통

- ⑧ 혼잡통행료로 인한 비즈니스 쇠퇴 (런던)

사회복지문화

- ⑨ '요코하마 안전·안심 계획안' 작성 (요코하마)
- ⑩ '어린이 안전 메일' 발송 실시 (오사카)
- ⑪ 장애인에게 기능 습득금 지원 (오사카)
- ⑫ 市 차원의 음식 계획 (런던)

행정재정

- ⑬ 영상산업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 확충 (요코하마)

① 도심에 새로운 위락지구 개발 (로스앤젤레스)

미국 로스앤젤레스市 도심에 새로운 위락지구(Entertainment District)가 건설된다. AEG(Anschutz Entertainment Group)가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는 총사업비가 10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위락지구 중심에는 컨벤션센터와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호텔을 중심으로 주변에 대규모 극장, 음식점, 쇼핑센터, 콘도미니엄 등 각종 관련 시설이 개발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적인 일자리 1,753개와 간접적인 일자리 3,077개가 창출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AEG는 내다봤다.

(www.ladowntownnews.com/articles/2005/09/05/news/news03.txt)

② 공업지역에 주거지 개발 (로스앤젤레스)

미국 로스앤젤레스市 동부의 앨러미다(Alameda) 거리와 인접한 공업지역에 최근 주택개발이 일어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市의 높은 주택가격, 개발가능용지 부족, 市 동부 공업지역 쇠퇴에 따른 미이용 토지·건물 증가로 이 지역의 주택개발은 더욱 활기를 띠 전망이다. 현재 이 지역은 방치된 공장이나 창고시설이 철거되고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러나 용도지역상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곳에 주거지를 개발하는 데에는 용도지역 변경 등 여러 장애요인이 있다.

(www.ladowntownnews.com/articles/2005/08/29/news/news02.txt)

③ 미군시설 반환용지를 위한 위원회 발족 (요코하마)

일본 요코하마市는 2004년 10월에 미·일 합동위원회를 열어 요코하마 시내 미군시설의 70%가 넘는 376ha의 시설반환 방침에 합의했다. 요코하마市는 이전적지를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해 2004년 10월에 ‘요코하마市 반환시설 이전적지 프로젝트’를 발주하여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 요코하마市는 2005년도에도 이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면서 학계, 시민, 관계행정기관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요코하마市 반환시설 이전적지 이용구상 검토위원회’를 발족시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전적지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www.city.yokohama.jp/me/soumu/kichitaisaku/kento.html)

④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 마찌즈쿠리 추진조례’ 시행 (요코하마)

일본 요코하마市는 마찌즈쿠리 사업에 지역주민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05년 10월 1일자로 ‘지역 마찌즈쿠리 추진조례’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마찌즈쿠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마찌즈쿠리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요코하마市는 관련 계획을 작성할 때에도 지역주민과 협의하는 등 지역내 많은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면서 관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www.city.yokohama.jp/me/shimin/kouhou/679/001-4.html)

5 '아파트 환경성능표시제도' 도입 (도쿄)

일본 도쿄시는 대규모 신축 아파트의 환경성능을 판매광고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아파트 환경성능표시제도'를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제도는 2005년 3월 환경확보조례가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환경친화적인 주택을 선택하기 쉽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2005년 10월 1일 이후에 건축물 환경계획서를 도쿄시에 제출한, 연상면적 1만㎡ 이상인 신축분양 아파트가 이 제도의 대상이 된다. 표시내용은 건물의 단열성, 설비의 에너지 절약도, 건물의 내구성,綠의 양과 질이며 이 4개 항목에 대하여 3단계의 성능평가를 실시한다.

(www.metro.tokyo.jp/INET/BOSHU/2005/09/22f9t200.htm)

6 市와 민간기업이 연계한 '지구온난화 수업' 프로그램 개시 (도쿄)

일본 도쿄시 환경국은 2005년부터 교육청 및 자치구 등과 연계하여 도쿄의 지구온난화 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 대상 환경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도쿄시는 이 환경교육사업 계획에 따라, 다양한 환경보전활동을 벌이는 기업의 직원이 관내 초·중등학교에 직접 참가하는 '지구온난화 수업'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도쿄시는 기업의 환경배려활동을 지원하고 질 좋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초·중등학교에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천행동에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5/09/20f9s100.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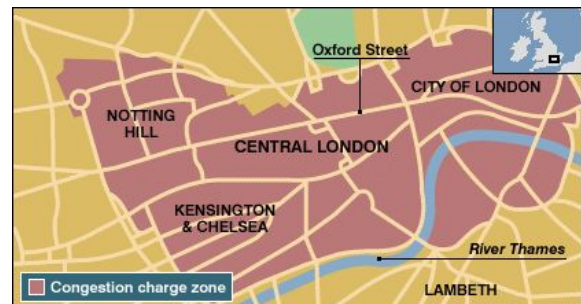
7 새로운 대기오염 문제인 초미세먼지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Weekly 신문은 남가주지역의 대기오염문제를 다루면서 초미세먼지(Ultrafine Particles)의 위험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이 신문이 인용한 한 연구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항구와 롱비치 인근의 높은 암발생률이 항구에 드나드는 수천대의 배와 운행중인 트럭에서 배출되는 매연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한다. 초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 크기인데, 주로 화석연료 연소와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에 포함되어 있으며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누적된다. 초미세먼지는 심장병, 암, 폐기능 장애, 뇌손상, 호흡기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 남가주정부의 꾸준한 대기오염 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ww.laweekly.com/ink/05/44/clear-kelly2.php)

8 혼잡통행료로 인한 비즈니스 쇠퇴 (런던)

영국 런던시의 리빙스턴 시장이 2003년 2월 런던 중심가에 지정했던 혼잡통행료 징수구간을 서부지역으로 좀더 확대하는 계획을 최근 발표하자 비즈니스 종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비즈니스 종사자들은 혼잡통행료 징수 이후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불만이다. 2/3 이상의 상점들이 쇼핑객 감소를 경험했고, 1/3 이상이 혼잡통행료가 없는 런던시 외곽으로 이전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혼잡통행료 징수구간 확대에 대한 의견 조사에 따르면 주민의 63%와 상점의 72%가 시장이 제시한 확대계획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ews.bbc.co.uk/2/hi/uk_news/england/london/4300082.stm)

9 '요코하마 안전·안심 계획안' 작성 (요코하마)

일본 요코하마市는 시내에서의 범죄건수가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시민들 사이에서 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여, 범죄피해를 줄이고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요코하마 안전·안심 계획안'을 작성했다. 이 계획안은 지역의 방범력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www.city.yokohama.jp/me/shimin/kouhou/680/001-3.html)

10 '어린이 안전 메일' 발송 실시 (오사카)

일본 오사카市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2005년 10월 17일부터 학교나 학원 교직원, 학교장이 지정한 보호자 및 지역의 관계자, 보육원과 같은 아동복지시설 등 약 2만 개소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의 정보와 같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를 '어린이 안전 메일'이라는 형태로 발신한다. '어린이 안전 메일'은 정보의 발신 개시부터 1시간 이내에 약 2만 개소에 발신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의 전화연락에 비해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장점이 있다. 당국은 어린이를 지키기 위한 지역환경 정비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도 메일 발신을 확대하기로 했다.

(www.city.osaka.jp/kankyojigyo/press/press050928.html)

장애인에게 기능 습득금 지원 (오사카)

일본 오사카市는 장애인이 각종 기능을 습득하여 자립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기능 습득금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①심신장애인 수첩을 교부 받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 ②장애인으로 오사카市 거주자, ③미용, 컴퓨터 분야 등 취업을 목적으로 전문학교와 각종 학교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통학하는 자이다. 지급한도액은 월 5,000엔이다.

(www.city.osaka.jp/kenkoufukushi/nwe/sep05_01.html)

市 차원의 음식 계획 (런던)



영국 런던시장은 건강하고 사회유대감을 향상하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런던 음식전략(London Food Strategy)이 어떻게 도시계획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지를 여러 전문가와 함께 논의했다. 2005년 9월 14일 발표된 런던 음식전략 초안은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계획, 영세 지역시장 보호, 음식 유통과정 등이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잘 반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www.sustainweb.org)

영상산업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 확충 (요코하마)

일본 요코하마市는 최근 영상콘텐츠산업 유치 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애니메이션과 컴퓨터그래픽 제작회사 등이 市에 진출할 경우, 市는 5000만 엔을 한도로 스튜디오 등 설비시설 설치비용의 절반을 보조한다. 이전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지만 보조금액이 최대 600만 엔에 불과했고 사용용도도 원칙적으로 오피스 임대료에 한정됐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거의 없었다. 요코하마市는 이번에 지원내용을 수정하여, 도심부를 문화예술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지역은 요코하마市 도심부인 칸나이(關内) 지구 주변으로, 기업 외에 대학과 전문학교 등 영상관련 교육기관도 이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www.nikkei.co.jp/news/retto/20050914c3b1404g14.html)